

文 사흘만에 다시 호남…“총리부터 탕평”

여수·순천·광양 방문
“DJ·盧 미완의 꿈 실현
호남 소외 다신 없을 것”
충청출신 박병석 캠프 합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아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방문했다. 지난 12일 전주를 방문한 데 이어 사흘만에 다시 호남을 찾은 것으로, 이날부터 당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만큼 텃밭인심 끌어안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호남은 순회경선 첫 지역인 만큼 기선제압을 위한 야당 주자들의 경쟁이 가장 뜨거운 곳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수·순천·광양을 방문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린 ‘동서창조포럼’ 간담회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수엑스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던 점을 강조, 그 뜻을 계승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평가단을 점검하고 다시 그날 저녁 예고없이 헬기로 (여수로) 내려와 평가단 만찬자리에 참석해 감동을 줬다”면서 “이런 유지 노력은 한 번 박람회를 크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대 속에서 논의한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호남의 소외나 홀대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다시는 호남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호남이 고위직 인사에



“힘 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여수시 교통에서 지난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소외됐다는 점은 오히려 강조하는 한편, 집권 시 총리 등 고위직 인사의 ‘탕평 원칙’을 지키겠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이념 갈등을 넘는 국민통합이 시대 과제를 강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다 이루지 못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꿈은 문재인이 꿈이 됐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며 “이를 훨씬 강력하고 발전된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날 큰 화재가 있었던 여수 수산시장을 찾아 임시 시장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찾아 항만 물동량 현황 등을 보고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한 그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지자들의 모임인 ‘더불어 포럼 전남’ 출범식 및 탄핵축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한편 문 전 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 측이 박 전 부의장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박 전 부의장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대전에서 내리 5선을 한 충청권의 대표적 중진 의원을 보강하면서 중원의 마음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충청을 ‘안방’삼

아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협소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 전 대표가 최근 “사상 최초로 영남과 호남, 충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박 전 부의장의 합류는 충청민심을 쓰다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는 김상곤 전 당 혁신위원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진표 의원, 이미경 전 의원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부의장까지 합류해 현재까지 5명이 외부에 공개됐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文 대세론 뒤집자” 안희정·이재명 수도권 공략

安, 충청 향우회 찾아 지지 호소…李, 라디오 출연 대연정론 비판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수도권에서 ‘문재인 대세론 뒤집기’ 공략에 나섰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향우회 중앙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충청의 차기 대권주자는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안 지사의 이날 행보에는 충청에서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견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충청에서 안희정 지사가 호남의 지지를 끌어내는 동시에 수도권에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호남지역에 ‘울인’한 안 지사는 오는 17일 충북 일정까지 소화해 “충청 대마론”의 불씨를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관심이 유동적인 충북을 주목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반 총장 불출마로 ‘충청 대마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충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주자임을 호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간담회 참석하는 등 주로 수도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시장은 특히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안 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 “대통합은 해야 할 일인 한데 과거에 소위 집권한 소수의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쓴 단어들이 주로 대통합”이라며 “도둑들하고 대통합할 순 없지 않나. 같이 반쪽 도둑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재벌개혁과 공개토론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제일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님의 재벌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재벌을 도와주는 정책을 주로 하신다”며 “실호세율을 올리는 얘기만 하고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증세를 반대하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밤부터 이날 0시20분경까지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장관을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동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사고 지역위원장 ‘낙하산’ 논란

광주 북갑·광산을·목포 등 5곳 경선 생략 방침에 후보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사고 지역 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5개 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조강특위는 16일 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당은 이날 면접 점수와 실사 결과 등을 합산, 오는 17일 최고위에 이를 보고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14일까지 사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광주는 북 갑과 광산 을, 전남은 목포, 여수 을,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5개 지역위원회다. 광주 남구의 경우, 사고지구당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지역위원장 선정이 오히려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조충훈 시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광주 남구의 경우, 사고지구당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지역위원장 선정이 오히려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조충훈 시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위원장 선출 경선이 과연 양상을 보일 경우, 당내 대선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되

지는 않았지만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은 힘들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경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한 일부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낙점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낙하산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 내외에서는 광주 광산 을에 이용섭 전 의원, 북 갑에 강기정 전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에 신문식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거나 전문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한편 광주 북구 갑에는 강기정 전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광산 을에는 이용섭 전 의원과 박시중 노무현재단 운영 위원장이 공모에 참여했다. 목포시에는 김종현 중앙당 사무부총장, 주요한 목포시의원, 최흥림 목포시의원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여수 을에는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순민 여수시의원, 정기명 변호사가 나섰으며 고흥·보성·강진·장흥은 김승남 전 의원과 신문식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바른정당과 연정 없다”

국민의당 부산서 최고위…“안희정·황교안·이재명 본선 어려워”

국민의당이 부산에서 1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등 부산·경남지역 민심 공략에 주력했다. 부산 해운대문화복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김영환·문병호·손금주 최고위원, 부산지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황교안, 이재명 이런 분들은 결국 낙마, 최종 후보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중도지향,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리드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본선에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부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빅텐트론에 대해 “정 전 의장과는 한번 만나기로 했으나 지방 일정이 바빠 만나지 못했다. 내일이라도 만나

별도록 할 참”이라면서 “그러나 바른정당과는 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부성 의원과는 개별적으로 가깝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빅텐트는 스몰텐트든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국민의당은 국민이 공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가 제일 좋은 텐트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공화적인 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항공수요 예측을 보면 당초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것보다 1000만 명이 줄었다. 이는 말이 신공항이지 실제 수요를 감당할 만한 허브공항이 아니다”면서 “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김해신공항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입점 매 5억5천 (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 (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 (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8억원 (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0-3600-9955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본점

대산프리모가발